

안정적인 전기및열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유지관리에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

한전KPS는 국내외 수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다양한 발전설비와 국가 중요 전력망인 송변전설비 등에 대한 고품질 책임정비를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1974년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인 전력설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해 국가생활의 품질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세계 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전KPS 원양지점

기자

안전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종합플랜트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

한전KPS는 전국의 수화력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의 발전설비와 전력설비 송변전의 시운전정비, 예방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0여년 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으로 한국품질대상 수상, 한국서비스대상 4년 연속 수상, 공기업 최초 11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 대우존스 지속 가능성 최우수기업 인증, BEST HRD 최우수기관 인증,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통해 정비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을 필두로 한 고객가치 선도 및 현장중심 경영 등 각 지역의 사업소들은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지점은 지난 '04년 10월 무재해 운동을 시작한 이후, 2010년 1월 10일까지 약 5년 4개월에 걸친 1,900일 동안 무재해 5배 목표달성을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무재해 목표 달성의 영광 뒤에는 노·사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결의대회 실시, 아차사고 발표대회 실시 등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주력하는 한편,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안전활동들이 있었다.

안전, 기본에 충실하자

곳의 안전 방침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또는 기본에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착용, 철저, 작업시작전 교육 등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다. 안양지점에서는 업무 개시 전 전 직원 이 안전보건 체조활동을 펼치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다. 간단한 체조를 통하여 스트레칭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에 임하기 전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침미팅 시 약 5분 간 안전사고사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도 결코 사고를 피해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시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 준수나 보호구착용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안전교육이다. 신규채용자나 전입자를 위한 기본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주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는 STOP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실시되는 있는 주간 안전 편지활동 등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다수의 위험요소 상존하는 작업 여건

발전설비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곳의 근로자들은 발전소의 특성 상 잠재되어 있는 많은 위험요소

B2B(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안전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대재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수칙 준수입니다. 기본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는 근로자분들께 3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첫째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마음자세, 우선 자신의 마음상태나 가정이 안정되어야 직장에서도 안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장자세, 자신의 안전을 돌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안전보호구의 철저한 착용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나만 안전할 게 아니라 동료의 안전도챙겨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로 인해 주변 동료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공동작업이나 또는 고소작업 시 반드시 규정된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안전에는 왕도가 없지만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인다면 최소한 중대재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양지점은 지금까지도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해 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사업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KPS 안양지점 이 찬웅 지점장



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실내 작업환경의 경우 고열과 고압이 상시 존재하여 화상이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으며 실외의 경우에는 고소작업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 등으로 인해 추락 및 질식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정비 작업의 특성상 정비하고자 하는 기계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여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작업환경은 피할 수 없는 정비작업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계들은 높은 전압의 전기를 이용하고 있어 활선작업이나 정전을 해야 하는 작업을 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이 밖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 산발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므로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 각종 회전체들이 많아 신체의 일부가 말리거나 끼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러한 다수의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장소에서 안전한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 정해진 작업수칙을 지키고, 작업에 맞는 철저한 보호구 착용 또한 철저히 지키고 있다. 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안전로프를 설치하였다. 또 중량물 취급작업 시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협착 등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크레인 신호수로 유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하였으며, 부피가 큰 가공물의 경우는 외주로 제작하고 있다. 또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제거를 위해 유자격라도 철저히 작업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설비인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도면을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재해5배 달성을 발판으로 안전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안전교육 소재의 다변화를 꾀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직접 안전교육을 해 나가는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 두 번째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근로자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근로자들이 작업 중 경험했던 아차사고사례에 대한 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사고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아차사고 사례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안전칭찬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여 평소 안전의식이 남다른 근로자나 안전관리활동에 적극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안양지점은 사내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직장내 분위기를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치침, 베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는 이런 직장 동료들 간의 침목도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한마음 행사일환으로 사내척사대회, 단체산행 등의 행사도 별이고 있다. 이밖에도 불우한 이웃돕기를 위한 독거노인 지원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KPS 안양지점은 안전을 바탕으로 고객사인 GS power(주)와 함께 안정적인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해서 발전설비 정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